

· 사회변천과
간호를결정
하는 요소 ·

정치학적 견지에서

연세대법정대 정치학과장

尹 亨 燮

I. 社會發展과 機能分化

社會發展이란 社會變遷의 한 下位概念이다. 모든 社會가 반드시 發展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衰退의 경우도 있다. 무엇이 發展이고 무엇이 衰退일까. 어느 時點을 基準으로 發展을 測定하고 衰退를 算出해야 할 것인가. 發展과 衰退의 構成成分은 무엇일까, 또 發展과 衰退로 이끌어가는 具體的인 動因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助長 또는 克服하는 方案은 무엇일까, 이러한 問題들에 對한 明白한 解答을 얻기도 前에 오늘의 主題 即 「社會發展과 看護」에 挑戰한다는 것은 매우 當돌한 일로서 화살을 잘못 쏘게 될 위험이 많다. 特히 社會發展과 政治發展 및 經濟發展과의 關係를 어떻게 規定해야 할 것인가 하는 問題도 合意를 못 본채 放置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는 社會發展을 政治發展 및 經濟發展의 上位概念으로 보고, 社會를 政治와 經濟를 內包乃至 밀바친하고 있는 綜合으로 보고자

한다. 同一한 論理에 따라, 政治發展의 特徵을 文化의 世俗化, 政治構造의 分化, 下位體系의 自律化 即 機能의 多邊化로 要約하고, 經濟發展을 利潤追求와 經濟構造의 合理化로 要約한다면 社會發展은 機能分化主義와 合理主義가 傳統的인 機能統合主義와 不合理한 神聖文化 또는 權威主義를 制壓하는 過程이라고 要約할 수 있겠다.

따라서 發展途上에 있는 社會나 積極的으로 發展을 指向하는 社會는 마땅히 社會內 諸 機能의 專門化와 分化를 認定하고 支援해야 할 것이며 諸 機能사이에는 合理的이며 人格的인 關係가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現代社會가 産業化하고 分業化될수록 더욱 強調되어 마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社會는 全體로서의 體系能力을 增大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여기서 注意해야 할 것은 機能間의 相互關係이다. 現代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合理主義의 機能主義 哲學이 支配하는 時代이다. 따라서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여러 機能은 서로 옆으로의 關係 即 水平的關係를 維持하면서 獨立하여 作用하여야 한다. 이점에 있어서 諸 機能이 서로 위에서 아래로의 關係 即 垂直的關係를 맺고 있는 傳統社會와는 區別되어야 한다. 이러한 狀態 下에서는 모든 機能이 位階化하여 하나의 機能 밑에 다른 機能이 隸屬되기 때문에 自律性을 喪失하고 그의 能力마저도 最大限으로 發揮할 수 없다. 곧 體系能力의 減少를 가져오게 된다.

II.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看護라는 機能

上述한 바와 같은, 理論的 틀을 念頭に 두고 現代社會에 있어서 看護라는 機能이 어떤處遇를 받고 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하나의 分業으로서의 專門性의 問題이다. 여기에는 안팎으로부터의 挑戰이 있다. 하나는 看護學界 自體內에서 主張하는 看護의 機能內容속에 숨어 있다고 보여진다. ANA는 그것을 Care, Cure, Coordination으로 包括해서 說

명확하고 있다. 그것을 더욱 具體的으로 說明하고 있는 Virginia Henderson의 “看護의 基本原理”(李松姬譯)에 依하면 現代의 看護에는 醫師의 機能, 物理治療師의, 營養師的, 社會事業家的, 地域社會指導者的, 教育家의 機能이 內包되어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것은 可謂 全人的機能이다. 그리고 看護學界의 多數人이 이에 同調하면서 높은 使命感을 後進에게 高취하고 있는 것 같다. 勿論 社會發展에 따라 看護의 機能內容도 Community Health Nursing을 비롯하여 擴大 또는 變化될 수 있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은 機能의 全人化, 複合化는 도리어 現代社會의 進行方向 即 機能主義와 合理主義에 逆行하는 것이 아닌지 나는 反問하고 싶다. 왜냐하면 看護學界가 着眼해야 할 것은 도리어 그처럼 엄청난 거룩한 全知全能이나 無所不能보다는 着實한 專門分野의 探索과 開發을 통한 機能의 分業化와 專門化에 執着하는 일이고, 그의 獨立의 機能을 主張해야 할 때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는 獨立의 機能이란 決코 他 機能과의 斷絶의 關係를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雙頭마차나 트로이카의 수레바퀴처럼 各自 獨立의 位置와 機能을 保持하면서 走行이라고 하는 綜合의 機能을 遂行하는 相互依存의이며 對等한 關係를 意味하는 것이다. 목수와 미장에게서 그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서로 다른 道具와 材料를 使用한다. 訓練過程도 全然 相異하다. 自負心도 다르다. 當然한 일이다. 機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機能은 相互 獨立의이다. 그러나 建設過程에 들어서면 그들은 서로 依存하되 水平의 關係를 維持하면서 協同과 調和를 求한다. 그리하여 建物이라고 하는 共同勞作의 結果를 產出한다. 言論과 教育, 行政府와 司法府의 경우도 이에서 다를 것이 없다.

나는 이 자리에서, 醫師와 看護員의 關係도 똑같은 視角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醫療팀의 一員이다. 목수와 미장이 共同 建設팀의 一員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醫師는 患者를 診察하고 適當한 處方을 내리며 Order를 준다. 藥師는 調劑하고 看護員은 이를 投藥하고 그 結果를 觀察하며 記錄하고 報告한다. 이러한

過程은 該當 患者가 健康히 질때까지 순환적으로 되풀이 된다. 이러한 共同勞作을 통해서 그들은 健康이라고 하는 이름의 建物을 짓게 되는 것이다. 실사 看護員이 醫師로부터 Order를 받고 報告를 提出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醫師와 看護員의 關係를 身分上의 主從關係, 隸屬의 關係로 볼 理由는 될 수 없다. 前述한 合理主義의 機能主義哲學의 立場에서 본다면 이는 서로 다른 獨立의 機能을 遂行하는 過程에서 서로 密接하게 協同하고 있는것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看護員을 醫師의 附屬物로 보던 舊時代의 封建的 殘滓는 하루 바빠 拂拭되어야 하며 看護員의 專門職으로서의 位置는 社會發展에 발 맞추어 正當하게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Ⅲ. 看護員의 社會的 與件

그러나 現實은 어떠한가? 即 看護員은 어떠한 環境속에 處해 있는가? 이 點에 關한 限 무엇보다 重要한 것은 社會的 認識도 問題이다.

우리 社會에는 아직도 看護員에 對한 兩個의 相反된 固定觀念이 支配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는 所謂 白衣의 天使論이다. 가장 거북하고 아를답고 따스함, 이것이 看護員의 像이다.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自負하고 後輩를 가르친다. 道德的으로 보아 最高의 善을 志向하고자 하는 意志가 있다. 그것을 규탄할 수는 없다. 그러나 現代社會의 支配原理인 合理主義와 機能主義의 눈으로 보았을때 白衣의 天使論은 더 이상 하나의 專門職이 追求할 標的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보는 것이 나의 솔직한 持論이다. 그러한 허황된 自己拘束보다는 도리어 專門職으로서의 具體的이며 特定한 機能領域의 確保, 그리고 正直한 職業人으로서의 白處가 必要하다고 본다. 곧 意識의 現實化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事實上, 白衣의 天使論은 하나의 拒逆할 수 없는 社會적 壓力이 되어 看護員으로 하여금 繼續的인 犧牲과 屈從을 甘受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처럼 엄청난 重壓속에서 自己의 權益을 主張하고 社會的 鬭爭을 展開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離職率이 높은 것도 이에 關

聯된다고 보겠다.

또 하나의 看護員像은 그와 正反對되는 것으로서 醫師에 附屬되어 各種 雜役을 감당해야 하는 使役군으로서의 像이다. 이러한 그릇된 認識이 비쳐내는 結果는 前者의 경우와 別로 다를 것이 없다.

오늘의 看護業界의 指導層은 무엇보다도 먼저 것처럼 兩極化되어있는 傳統的인 固定觀念을 벗어내고 그 中間의인 位置에 새로운 看護員 像을 부각시킬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이와 關聯해서 名稱改正問題도 提起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醫療從事職 9種 가운데에서 師의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는 職은 看護와 助産뿐이다. 女權問題와도 有關할 것이다.

또하나, 教育課程에 對한 再檢討도 있어야 하겠다. 72年 現在 看護教育機關 在學生은 全國에 10,374名인데 그중에서 4年制 大學教育을 받고 있는 學生은 不過 2,413名即 25%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75%의 學生들이 看護學校, 看護(또는 保健)專門學校에 在學하고 있다. 教育課程이 이처럼 多元化되어 있는 限 看護職 全體가 社會로부터 同一한 處遇와 認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現在 公務員看護職級에 從事하고 있는 數는 1,817名인데 그중 67.48%가 5級에 머물고 있고 忠南의 경우를 보면 市·道立病院 從事者의 거의 全員이 5級 또는 臨時職으로 되어있다. 10年以上 근무해도 5級에 머무는 경우가 많으며 더욱이 看護員과 看護補助員이 共히 5級으로 待遇되고 있는 實情이다 (經濟企劃院 統計에 依하면 看護補助員의 數는 1970年 3,541名에서 1971年 7,101名으로 거의 倍增하고 있음에 反해 看護員은 1970年 14,506名에서 1971年 16,351名으로 鈍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특히 調查報告된 바(崔良子, 1973年度 國內 臨床看護員의 實態調查)에 依하면 看護員의 初俸도 教育課程의 差異에 別로 影響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看護指導層이 問題로 提起해야 할 것은 看護人力需給에 關한 일이다. 1972年 現在 大韓看護協會(總務 윤수복)가 算出한 바에 依하면 우리나라 看護員의 總需數는 13,717名인데 現

在 就業하고 있는 數는 8,000名이다. 그러므로 5,717名이 아직 充當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免許 所持者의 總數 19,700名 中에서 海外 滯留者 4,000名을 減하면 國內에 居住中인 免許 所持者 即 就業 資格者는 15,700名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現 就業者 8,000名을 빼면 아직도 7,700名이 資格을 갖고도 就業을 안하거나 못하고 있다는 結論이 나온다. 따라서 未就業者 7,700名 中에서 需要에 對한 充員不足數 5,717名을 全員 就業시킨다해도 결국 約2,000名이 남는다는 結果가 된다. 그러면서도 每年 約 3,000名의 卒業生이 輩出되어나오고 있다. (1975년에는 3,257名, 1976년에는 3,274名으로 豫想되고 있다)

이러한 實情에도 不拘하고 政府가 마련한 看護員需給計劃案에 依하면 55,000名의 看護員이 必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大韓看護協會 側과도 充分한 事前協議가 없었던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同 協會 윤수복 總務의 主張).

人力需給計劃을 어떻게 調整하느냐 하는 것은 看護員의 生存權益의 問題, 社會的, 法律的 處遇의 問題, 教育體制 整備의 問題 그리고 새로운 看護員像 樹立의 問題와 密接하게 關聯된다고 생각된다.

IV. 政治體系와 看護員의 權益增大

위에서 考察한 바에 依하면 看護員集團은 現代社會속에서 하나의 專門職으로서 아직 滿足스러운 認識과 處遇를 받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看護員集團의 利益表出의 能力問題와 政策決定過程에의 參與問題가 提起된다.

政治體系에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으로부터 無數한 利益表出이 作用한다. 그러한 目的을 爲해서 各種의 特殊利益集團이 形成되고 體系의 利益配分政策의 決定過程에 影響을 미치고자 力을 行使한다. 이것은 民主政治의 餘白을 補充하는 肯定的인 機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美國의 醫師協會나 韓國의 勞總은 좋은 본 보기가 된다. 集團의 힘이 아니고서는 現代政治體系에 거의 影響을 미칠 수 없다.

大韓看護協會는 그러한 角度에서 보았을 때

存立의 正當性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의 活動이 意味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大韓看護協會가 創立以來 오늘날까지 看護員의 權益增大와 社會의 地位向上을 爲해서 어떠한 業績을 남겼는지, 그리고 看護員의 權益에 關한 國家의 政策決定에 얼마나 壓力을 行使하며 影響을 미쳤는지 檢討해 볼 必要가 있다.

우리는 最近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二個의 事件 即 1969年의 金玲子看護員事件과 1973年의 朱鉉玉看護員事件을 통해서 大韓看護協會가 利益集團으로서의 壓力機能을 遂行하였음을 記憶한다. 그것은 看護員이 內部的結束力을 誇示하면서 傳統的 社會的認識과 對決한 事例이다.

그런데 위의 二事件에서 나타난 大韓看護協會의 機動性은 매우 좋은 對照를 보여준다. 前者 即 金玲子看護員事件이 發生한 것은 1969年 5月 23日이다. 이것이 問題化되어 金看護員이 拘束된 것이 7月17日, 適否審査에서 棄却된 것이 7月26日, 起訴된 것이 8月9日이다. 그런데 8月29日의 서울市內 간호원장 會談를 거쳐 大韓看護協會가 이의 不當性을 指摘·抗議하는 聲明書를 發表한 것이 8月 30日, 政府 및 關係要路에 陳情書를 提出한 것은 實로 事件發生 100日後인 9月 2日이었다.

이에 反하여 朱鉉玉看護員事件이 發生한 것은 1973年 5月11日 저녁 8時10分이었는데 大韓·서울合同理事會가 召集된 것은 다음날 아침 10時40分이고 全員이 慶熙醫院을 訪問하고 病院長

과 接觸을 開始함으로써 行動化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不過 1시간후인 11時40分이었다.

이 二個의 事件속에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숨겨져 있다. 그러나 오늘 내가 指摘하고자 하는 것은 大韓看護協會의 權益意識과 機動性의 놀랄만한 發展相이다. 大韓看護協會는 金玲子看護員事件을 통해서 利益集團으로서의 自覺과 資務感 그리고 壓力作用의 效用을 배운 것 같다. 그 惠澤은 비단 朱鉉玉看護員에게만 아니라 陰으로 陽으로 全 看護員에게 펼쳐가고 있는 것이다. 現代 政治體系속에서 自己의 社會的, 職業的 權益을 保護하고 伸張하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

大韓看護協會앞에는 既述한 바와 같이 아직도 山積한 課題가 가르놓여 있다. 그것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政治體系의 生理를 分析·把握하고 多元的인 利益配分決定過程과의 緊密한 接觸과 그의 活用을 계승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질 의 응 답

윤형섭 박사

사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간호원의 권익옹호에 있어서 간호협회가 압력단체로써 큰 역할을 행해야한다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항상 느끼고 있었던 것이긴 하나 어떻게 행할 것인가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은 앞으로의 간호협회의 활동을 대 활발하게 하는 자극이라고 하겠습니다.

